

공주 마곡사 일대 문화관광 육성 추진

공주시, KTX 공주역 개통 앞두고 관광진흥책 일환

충남 공주시가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희망관광도시 조성에 나선다. 마곡사를 비롯해 갑사 등 계룡산 일대의 불교문화권과 공산성과 무령왕릉 등 역사문화시설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공주시(시장 오시덕)는 1월 6일 공주만의 특색있는 역사문화유적을 최대한 활용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한 관광콘텐츠를 개발,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열기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발계획은 호남고속철도 공주역의 2015년 3월 개통과도 연관되어있다. 공주역을 중심으로 크게 계룡산과 마곡사 일대, 공주·부여의 백제문화 등이 개발된다.

공주시는 이를 위해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공산성과 무령왕릉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마곡사 주변과 인근 무성산을 연결하는 광역 관광권역을 개발해



'테마를 떠나는 신나는 공주나들이' 관광안내 책자



공주시가 관광진흥 차원에서 지원하는 공주 마곡사 전경

공주 마곡사-무성산지구 연계 관광안내책자 3000부 사전 배포

나간다.

공주를 대표하는 사찰로는 마곡사와 동학사, 갑사가 있다. 마곡사 관계자는 "백제시대 창건된 마곡사는 <정감록>이나 <택리지>에서 기근이나 전란의 염려가 없는 곳으로 꼽힌 곳"이라며 "일제강점기 김구선

생님이 은거하기도 했다. 선생님이 다니던 길을 따라 만든 백범 명상길은 솔향기를 맡으며 산책하기 좋으며, 번뇌를 씻어내는 템플스테이도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이에 앞서 공주시는 계룡산, 갑사, 마곡사, 석정리 박물관 등 다양한 관광상품을 테마별로 묶은 '테마를 떠나는 신나는 공주나들이' 관광안내책자 3000부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기존 '박물관 체험 나들이', '딱 한 시간만 걸어요', '근대건축물 돌아보기' 등 기존에 개발된 15개 프로그램에

'공주의 사방에 있는 석굴사원' '의승과 열사를 만나다' 등 불교관련 내용이 추가됐다.

또 석정리박물관, 국립공주박물관, 충남역사박물관, 계룡산 자연사박물관 등 다양한 박물관과 선사시대에서 백제와 고려, 조선, 일제 강점기까지 도처에 자리 잡고 있는 많은 유적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됐다.

아울러, 자전거여행, 산책코스, 캠핑, 농촌체험, 순례성지 등 주요 관광자원을 목적에 맞게 테마별로 엮어 관광객의 취향에 맞도록 선택해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주맛집과 시티투어, 관광안내지도도 함께 수록해 관광객의 편의를 한층 도모했다.

이밖에도 관광 스토리 발굴, 팸투어 활성화, 선진형 관광홍보시스템 구축, 관광자매도시 확대 등 적극적인 관광상품 개발과 마케팅을 추진 중부권을 대표하는 관광중심도시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오시덕 공주시장 "2015년은 역사와 문화도시로서의 공주의 정체성을 다지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특히 불교와 역사문화를 중심으로 중부권 대표도시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빛고를 전통등감승회 성료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는 지난 1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서울 연등회 보존위원회의 지원으로 '빛고를 전통등 감승회'를 개최했다. 광주불교회관 전통등공방 열린 이번 감승회는 광주 지역 사찰과 불교단체 회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엄등 4개를 만드는 과정으로 전체 4일간 36시간의 감승회가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선덕사 '붓다로 살자' 실천도량으로

광주 선덕사(주지 원묵)는 1월 25일 광주전남지역 최초로 '붓다로 살자' 실천도량 선포식을 봉행한다. '붓다로 살자'는 종단 자성과 쇄신 결사의 성과를 이어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부대중이 자발적으로 수행과 보살행에 참여하는 의식개혁운동이다.

선덕사는 인드라마 생명공동체 광주도량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 마을공동체를 지향하는 포교사찰로 작은 도서관인 '티움'을 설치하고, 지역민들을 위한 마을 사랑방 '씨앗이 바람을 만나'를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 청소년 전법 중심 도량으로서 지난해에는 15개 우수 사찰에 선정되기도 했으며, 신도 기본교육과정인 곁음마학당을 수시로 열었다. 2014년에는 신도 전문교육과정인 무등불교대학을 개설하는 등 활발한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선포식에는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의 친필 휘호 전달과 함께 선덕사 청규 제창, 붓다로 살자 발원문 합송 등의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선덕사는 '붓다로 살자' 실천도량 선포를 계기로 향후 스님들마 학당(입문교육), 불교대학 등 신도 교육 프로그램에서 '붓다로 살자' 불교관과 실천문을 교육하고 선덕사 실천 청규를 제정하고 포살을 시행하며(붓다로 살자 실천 지침 마련 및 보급) △붓다로 살자 캠페인 등의 실천운동을 마련해 구체적인 삶으로 실현하도록 정진할 계획이다.

선포식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 본부장 도법 스님이 '붓다로 살자' 불교관과 실천에 대해 법문할 예정이다. 또 종정 진제 스님의 '붓다로 살자' 휘호가 전달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고창군사회복지시설, 게이트볼 장 개소

13일에는 'Nanum Store' 착한사업장 1호점 현판식



고창군사회복지시설(관장 대원)에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을 책임질 게이트볼장이 개관했다.

고창사회복지시설은 1월 12일 선운사복지재단 대표이사 법만 스님, 이상호 고창군의회 의장 고창군 게이트볼장 연합회 김원식 회장 등 150여명이 참석해 고창군노인복지관 게이트볼장의 개관을 축하했다.

대원 스님은 "고창군노인복지관 게이트볼 개소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 됐다"며 "복지관에서는 게이트볼장의 물적 인적 자원을 지원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창군노인복지관 게이트볼장은 총 1억 4000여 만원의 사업비로 대지 6,705㎡에 연면적 488.04㎡의 실내경기장으로

조성됐다.

고창노인복지관 회원 변영철 어르신은 "노인복지관에 게이트볼장이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게이트볼장을 조성해 준 고창군과 복지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고창군노인복지관 게이트볼장은 주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열어 전문강사의 지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선운기초푸드뱅크는 13일 Nanum Store 착한사업장 1호점 현판식을 진행했다. Nanum Store 착한사업장은 지역에서 주민이 하나가 돼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나눔문화를 보급·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백산장학재단 장학금 수여 및 신년법회

총 1850만원 지역 학생 14명에게 전달... 5년간 7700만원

백산장학재단(대표이사 도영, 완주 송광사 회주)이 미래의 꿈나무 22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백산장학재단은 1월 14일 전주 오렐리스 웨딩홀에서 제5차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전북제일고 김지은 학생의 6명의 고등학생에게는 각 50만원, 전북대학교 권기철 학생 외 14명의 대학생들에게 각 100만원 등 총 18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유남희 전북대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법회는 삼귀의, 초전법륜경 봉독, 신년하례, 발원문 낭독, 경과보고, 장학증서 수여, 법어, 호남오페라 단의 공연순으로 진행됐다.

올미년 신년하례를 겸해 열린 이번 행사에는 백산장학재단 대표이사 도영 스님, 송광사 주지 법진 스님, 금성암 주지 덕산 스님, 대전 죽림정사 주지 광진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송하진 전북지사 내외,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각 사찰의 신도 불자 600여 명이 동참해 성황을 이뤘다.

도영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부처님께서는 모든 이의 행복과 안락을 위해 전법을 선언하셨듯이 무엇보다 인제육성이 가장 우선이라는 신념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했



다"며 "항상 당신은 부처님이라는 생각으로 생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최영현 군원광대학교 교육학과)은 "오늘 받은 장학금으로 꿈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 부모님의 짐을 덜어드린 것같이 기쁘다"며 "사회에 진출해서 이같은 장학사업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백산장학재단은 도영 스님이 사재를 출연하고 기금 마련 전사회를 개최하는 등 3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지난 2010년 9월 출범했다.

출범 이후 5년간 총 150여 학생들에게 총 7700 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꾸준한 재원확보를 통해 기본재산 6억 8000여 만원으로 2배 이상 성장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한국불교미륵종 총무원장 권한대행 선임 파문

한국불교미륵종의 총무원장 권한대행 선임에 종도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불교미륵종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영각)는 1월 13일 총본산 김해 관음정사에서 종단 정상화를 위한 종도 결집대회를 갖고 "현 사태를 초래한 종정스님은 책임을 지고 교시를 철화하고, 현 사태를 주도한 법인이사진은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법인이사 4명이 결탁하여 종도들을 배제하고, 종헌종법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권한대행을 선임 하였으며, 탈법과 편법이 자행된 사실을 알면서도 종정 스님은 종회를 해산하고 이를 승인하였다. 선임된 권한대행은 독선과 독주로 파행적 종단사태를 야기하고 있다"고 밝히고 경남 창원지법에 '총무원장 권한대행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불교계 신문에 권한대행 선임의 부당함을 알

리는 광고를 게재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11월 27일 前총무원장 송정 스님의 1주기 다례제에서 총무원장 덕은 스님이 사의를 표한 후, 12월 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후임 총무원장을 법인이사회에서 선임하기로 결의했으나 12월 23일 종정 무불스님 교지를 통해 묘각 스님을 총무원장 권한대행으로 선임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종도 31명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영각 스님은 "법인이사장과 수차례 만나 타협을 하였지만 해결이 되지 않아 탈법과 편법으로 선임된 직위로 행해지는 파행적 종무행정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종도스님들도 비상대책위원회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禪農教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입 종 안 내

1) 입종 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 ◇ 반명판 사진 3매
-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 ◇ 사찰 등록증
- ◇ 주지 임명장
-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번지 광덕사
- 총무원 : 전화 041)584-4153 / Mobile 010)6478-1569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작금 세계불교문화가 수직적 종신제(교황적 이념)에 집착되어 불교문화의 수평적(평등이념) 지위를 잃어 가는 말세적 불교 문화의 분열상을 보면서 불교 국가간 종단간 소통과 교류 및 연대만이 더 큰 불교세계를 이루고 소멸되어가는 불교 문화의 재 창달의 길이라 여겨 세계불교 연합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군소 종단의 적극 동참을 희망 합니다)

문의 041)584-4153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번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조실)
회장 흥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